

이경표 홈스피탈 내과의원 원장

진짜 내 집 같은 ‘홈스피탈’

투석 전문병원으로 입지...힘 되어준 ‘순천향’에 감사

‘집이 우리의 미래(Home is our future)’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 때문에 병원의 미래도 집에서 찾고자 병원 이름을 ‘홈스피탈’이라 지었다. ‘집(Home)’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홈스피릿(Home Spirit)과 홈마인드(Home Mind)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를 ‘홈벌쓰(Home Birth)에서 홈다잉(Home Dying)까지’로 치환한 홈라이프 사이클 개념을 고안한 것이다.

정리_전진용 | 사진_홈스피탈 제공

이제는 한남동에서 꽤 입소문이 난 ‘홈스피탈 내과의원’의 이경표 원장은 자신만의 집과 병원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다. 그래서 집을 병원으로 그대로 옮기려고 했다. 이름의 의미처럼 개원 당시에는 왕진 전문 병원으로 컨셉을 잡았다. 하지만 뜻밖의 악재가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왕진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석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한남동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 프리미엄 왕진 수요가 많은 곳, 작고한 친형의 모교인 단국대학교가 위치했던 곳, 이젠 터만 남아있는 왕실 소유의 제천정이 있던 곳 등, 나름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남동과의 운명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만난 것이 한남동에 자리하게 된 운명인 거 같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아니었으면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왕진과 달리 투석은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살아남기 위해 서울병원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이 한남동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남동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곧 환자의 집...최고 설비로 꾸미다

순천향과의 학연도 한남동과의 지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겁도 없이 지금의 자리에 개원한 것 자체가 저는 운명이라고 믿게 됐다. 순천향대 서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제는 투석 전문 내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홈스피탈만의 유니크한 이름과 인테리어 등 병원의 모습도 주목을 받게 됐다.

“왕진병원을 구상하면서 환자의 집은 병원으로 활용하고 병원은 환자의 집으로 꾸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병원답지 않고 집의 느낌이 나길 바라서 일부러 병원 인테리어를 안 해본 업체 중에서 골랐고, 덕분에 홈스피탈만의 독창적이면서도 푸근한 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부딪크 호텔 풍의 1인실 외래가 4개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투석실이 확장하면서 그중 2개가 2인 투석실로 개조되어 개인적인 분위기를 원하거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되고 있다. 홈스피탈은 현재 투석 중심 정통 내과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최신 투석 장비를 비롯하여 일반 내과와 종합 검진에 필요한 내시경, 초음파, 엑스레이, 심전도, 체성분분석기, 임상병리 장비 세트까지 두루 갖추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장비 하나를 고르자면 음악치료를 위해 구매한 야마하 그랜드피아노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라운지 피아노 연주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홈스피탈의 철학은 ‘환자 중심주의’

홈스피탈 철학의 핵심은 환자 중심주의다.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환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직원이 힘들어지는 딜레마가 있었다. “다행히 직원들의 너른 이해로 환자 중심적인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슬로건은 ‘내 집이어서 편안한 홈스피탈’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 집처럼’이나 ‘내 집같이’ 집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집이자 환자들의 집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야근하다가 병원에서 자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 원장에게는 홈스피탈이 제2의 집인 셈이다. 이 원장은 홈스피탈 병원 운영에 있어 소망이라고 한다면 홈스피탈이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는 것이라 강조한다.

“환자에게 잘 쓰임 받는 쓸쓸한 병원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시던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식장을 찾게 되는데, 그분들의 건강했던 모습을 담은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마음이 짠해 집니다.”

보통은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경우라도 의사가 환자의 장례식에 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원장은 본인 직접 환자의 장례식을 찾곤 한다. “투석 환자의 특성상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가족의 예를 다하고 장례 이후에도 남은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홈스피탈 투석 의사사이기에 가능한 축복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사다. 제 정체성에 대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타적인 직업과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의사의 처방 역시 창작예술이라 생각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순천향의 도움으로 의사라는 일에 행복해하며 살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